

# 민실위 보고서

2011년 12월 30일(금)

## 무지함만 드러낸 대북 뉴스

### ABC가 무너진 총체적 난국

지난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MBC는 특보와 정시 뉴스를 통해 대북 관련 뉴스를 연일 무더기로 쏟아냈다. 이 많은 뉴스에 대한 현직 MBC 기자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정보는 없고 흥밋거리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 부풀리기 뉴스였다는 것이다. 물론 그 기저에는 대북 뉴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은 커녕 북한 문제에 대한 무지함만 깔려 있었다. 한마디로 이번 대북 뉴스 보도과정은 보도의 ABC가 완전히 무너진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것이다.

우선 첫날 김정일 사망 소식이 발표된 것은 12시 북한 뉴스를 통해서였다. 그런데 8시부터 시작한 뉴스데스크의 아이템이 제대로 정해진 것은 오후 2시 편집회의도 아니고, 오후 4시가 다 되어서였다. 일찍부터 보도국으로 호출당한 기자들은 이 시각까지 특보를 보거나 잡담을 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보도국에 대북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보니 첫날부터 우왕좌왕한 것이다. 다음날부터는 더욱 가관이였다. 정치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각 부서에 오후 2시 회의 전에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아이템을 내도록 지시했다. 꼭지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급급해 일단 무엇이든 끌어 모으자는 것이었다.

### 전단지 수준으로 전락한 뉴스



꼭지를 할당받은 기자들 또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북한 관련 꼭지를 배정받은 기자들은 자신의 기사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떤 전문가를 찾아 어떻게 인터뷰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기자들에게 해당 기사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큰 틀을 잡아줘야 할 데스크들은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기자들은 인터넷을 뒤져서 남의 기사를 요약하는 식으로 사실상 베끼기에 급급했고, 작성된 기사는 데스크의 큰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출고되었다.

그 결과는 대북 문제에 대한 MBC만의 심층적인 분석이나 정보가 없이 피상적인 뉴스와 흥밋거리 뉴스, 베끼기 뉴스,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뉴스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저급한 일부 잡지에서나 관심이 있는 김정일과 김정은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단지 수준으로 꾸준히 작성한 것이다. 첫날부터 연일 보도된 '북한 발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비롯해 제목부터 선정적인 "묘령의 여인 정체는?", "김정일의 여인들", "생모의 일본 내 흔적", "나이 부풀렸나?" "묘령의 여인 김정일의 딸", "진짜 눈물? 가짜 눈물?", "4조원대 비밀계좌 어떻게?", "'재일교포' 출신 우상화 걸림돌", "군부대 옆마다 별장 33개" 등 술하게 많다.



### 정부여당 감싸기 보도

이 과정에서도 현 정부여당에 대한 감싸기 보도는 지속되었다. 김정일 사망 소식을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전혀 낚새도 못 채 우리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일자 우리 뉴스는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몰랐다"는 보도를 덧붙이며 사실상의 몰타기를 시도했다. 북한이라면 김정일 위원장이 죽어도 1년 정도는 감출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대표적인 반복 단체 인사의 입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반면 "청와대 발표 직전까지

‘깜깜’ 기사의 경우 8시대에는 아예 보도되지 않았다. 대북 첩보망의 붕괴 원인을 다룬 보도 “인적 첩보망 와해..왜?” 역시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특히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이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이라 전형적인 베끼기 기사란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다.

국정원의 인적 정보망이 붕괴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당장 여당 내부에서 조차 서울시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정보 문제에 대해 전혀 무지한 원세훈 현 국정원장이 취임 직후 대북 전담팀을 반MB 세력으로 몰아 사실상 와해시킨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로 실시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으로 인해 ‘흑금성’으로 대표되던 대북 정보 인맥이 와해되었다는 지적도 이미 오래 전에 설득력 있게 나와 있었다.

그런데 우리 보도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에서 지속된 햇볕정책의 결과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그것도 현 국정원의 대변인격이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의 인터뷰 이외에 다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김정일 양치질’ 발언으로 인한 정보원 위험론처럼 인적 첩보망의 ‘총체적’ 붕괴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내용일 뿐이다.

## 정부 비판 기사의 누락

북한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면서 국내 뉴스는 당연히 홀대를 받았다. 하지만 홀대받지 않아야 할 정부여당 비판 기사까지 홀대받는 일이 연일 발생했다. 먼저 이상득 의원 여비서 통장에서 8억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지난 19일 보도되었지만 우리 뉴스에서는 단신으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21일에는 “대통령 조카사위 고발” 기사가 25번째 꼭지로 보도되어 많은 지방에서는 볼 수 없었다. 날씨와 사건사고 뉴스로 채워진 국내 뉴스 톱블록에 보도되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22일에는 “최구식 의원 처남 소환” 기사가 로컬 시간대인 28번째 꼭지로 보도되었다. 이 기사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한 특종 기사로 다른 모든 언론이 뒤따라왔다. 문철호 보도국장은 취재기자를 격려하며 특종상금까지 수여했지만, 정작 뉴스는 홀대했다. 김정일 사망 소식 이후 국내뉴스가 17꼭지부터 보도되었지만, 동물원 성탄절 선물 보도보다 밀린 28번째 꼭지였다.

## 대형 사건에는 역시 MBC?

김정일 사망 소식과 같은 대형사건 속에서도 우리 시청률은 여전히 꼴찌를 면하지 못했다. 사망 보도 첫날인 19일부터 2주일 간 우리 뉴스 시청률은 11.6%로 KBS(18.4%)는 물론이고 SBS의 1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꼴찌 시청률이 계속되자 후배들의 기강해이를 타하며 군기를 잡았던 문철호 국장은 사망 보도 첫날 시청률이 13.0%로 SBS의 10.8%를 앞서자 후배들을 극찬했다고 한다. 하지

만 불과 하루만인 다음날부터 SBS에 다시 시청률이 뒤지기 시작한 사실에는 입을 다물었다. 과거 대형사건이 발생할 경우 MBC뉴스가 시청률 특수를 누렸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청률 특수가 단 하루에 그친 경우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 김문수 지사의 119 전화는?



한나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긴급전화인 119로 전화해 소방관과 실랑이를 벌인 일로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김 지사와의 통화 당사자인 소방관 2명이 인사조치되면서 과연 누가 잘했느냐, 인사조치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언론은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뉴스데스크는 28일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박용찬 사회2부장은 이에 대해 일반 시민이 전화해도 관등성명 대고 친절히 받아야 하는 매뉴얼에 어긋났고 장난전화로 오인할 이유가 없었다며 소방관들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리포트를 할 경우 소방관들을 비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인사조치된 상황이라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당사자가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인 데다가 박 부장의 개인적인 의견과 반대로 김문수 지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아 이미 논란거리가 되었다. 따라서 언론사로서 MBC는 부장 개인의 사적인 판단을 떠나 일단 사실 위주의 보도를 하고, 시시비비는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BS의 경우 이 아이템을 2분 반 동안 집중보도했고, 이 보도 시점에 어제 분당 시청률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 27일 민실위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 뉴스가 “생생정보통”과 같은 생활정보 뉴스로 전략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다. 정치권에 조금 예민할 것 같은 스트레이트 뉴스가 자주 누락되거나 지방뉴스 시간대로 밀려나는 일은 빈번한 반면, 가벼운 생활정보지성 리포트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생활정보지성 정보를 과연 시청자들이 9시뉴스에서 보기를 원하고 있을까? MBC가 시청자들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